

# 神人調化思想의 現代的 理解

裴圭漢\*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神人調化思想의 現代的 理解 |
| II. 大巡思想의 神觀   | 1. 大巡思想에서의 神과 人間   |
| III. 大巡思想의 人間觀 | 2. 神人調化思想의 理解      |

## I. 머리말

신인조화는 대순진리회의 종지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성사를 구천상제로서 신명계의 최고위의 하느님으로 신봉한다. 증산성사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景)의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승화시키면 정치적 세계평화와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널리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이를 위한 우주와 세계변화 그리고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으로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서 정신개벽,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 지상천국건설이라는 분명한 목적달성과 관련된 진리체계이며 사상체계이다. 그러므로 종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과 수도생활의 기본요건이며 사회적으로는 대순진리를 널리 알리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미력함에도 불구하고 신인조화와 관련된 개인적인 관념을 대순사상에서의 신에 대한 관념, 인간에 대한 관념을 위주로 하여 우선 간단하게나마 적어보고자 한다.

## Ⅱ. 大巡思想의 神觀

대순사상이라 함은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와 인류를 널리 구제하기 위한 강증산성사(姜甌山聖師)의 고뇌에 찬 천하대순과(天下大巡)과 삼계공사(三界公事)에 관련된 일련의 진리체계 및 사상체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계승·홍포하여 구체화한 조정산성사(趙鼎山聖師), 박우당성사(朴牛堂聖師)의 사상체계를 포함하여 증산성사의 삼계대순한 진리를 신봉·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리공론 및 사유체계를 광의적으로 볼 때 대순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은 크게 볼 때 우주의 실체, 우주의 개조, 우주의 진화, 우주의 변화원리를 밝힌 대사상으로, 우주속에 존재하는 모든 신적 존재(神的存在)와 인적존재(人的存在)에게 우주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명확하고도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과 인간의 바람직한 존재양식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순사상에서 본 신에 대한 관념이나 사유체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기존의 신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다양하다. 신에 대한 입장을 보면 크게 일신론(一神論)·다신론(多神論)·범신론(汎神論)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에 대한 견해를 굳이 지역적으로 나눠보자면 일신론, 다신론은 서양지역에서 발전하였고 범신론적 입장은 동양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을 초월적이며 별개의 존재로 보았던 서양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가 유지·발전되었고 신을 인간과 합일적으로 또는 유기체적 입장으로 이해하였던 동양에서는 범신론적 종

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신을 이해하는 입장이나 견해가 지역적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아무래도 신을 믿는가, 믿지않는가 또는 어떠한 종교를 신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정지역의 종교적 경향이나 전통을 아직까지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과거보다는 현재가 신에 대한 인간 개인의 입장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개별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동양내에서도 특히 한국은 전국신화를 비롯해서 고주몽의 난형신화(卵形神話), 박혁거세의 난형신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이는 처용, 수로부인, 도화랑, 비형랑 등의 이야기와 기타 수많은 신화, 설화, 전설, 문화양식,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신을 떠나서는 인간삶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과 관련된 문화가 오랫동안 축적·발전되어왔다. 그래서 신에 관한 명칭도 신의 위계(位階)나 형태,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불리워지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만 해도 여러가지이다.

예를 들면 신명(神明), 신선, 선녀, 귀신, 혼백, 신령, 심령, 영혼, 정신, 정기, 정령, 정혼, 넋, 혼령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신을 나타내는 단어만큼이나 오랫동안 신명과 더불어 발전해온 흔적이 문화와 생활양식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속에 존재해 온 사람들도 신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떠한가? 전경을 살펴보면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세계가 인간세계의 구조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세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수 없이 존재하는 것 처럼 신명세계의 공간적 분류에 따라 다양한 신명이 존재하고 또한 신명의 역할이나 그 수행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신명이 무수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경에서 볼 수 있는 신명만 보아도 천상신, 중천신, 홍천신, 지방신, 문명신, 도통신, 만리장신명, 황극신, 군자신, 백복신, 만사신, 조상신, 압사신, 아표신, 원신, 역신, 척신, 조선신명, 서양신명, 동화신명, 호소신, 도술신명, 육정신, 보은신, 조왕, 성신칠성, 천지망량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신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신에 대한 관념을 전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대순사상에서의 신의 세계는 위계적(位階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질서체계가 확립된 세계이다.

전경 교운1장 9절의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전경 행록 4장 4절의 「하늘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라는 김송환의 질문에 상제께서는 아홉번을 대답하고는 「그만 알아두라」고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모든 신성·불·보살이 회집하여 구천에 하소연한다는 것은 신명계의 최고위가 구천상제임을 나타내며, 신명계도 천상, 지하 등의 경계가 있으며, 하늘의 위계에 따라 여러하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명의 존립도 이 위계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순사상에서 본 신은 천지만물에 깃들 수 있는 범재적(汎在的)존재로서 각기의 기능력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다.

전경 교법 3장 2절의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전

경 교법 2장 17절의 「사람마다 그 님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일에 해대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

전경 교법 1장 50절의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 신명은 천지만물과 만인에 존재할 수 있는 범재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명이 인간에게서 떠나면 그 사물의 기능과 그 인간의 육체적 삶이 종결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명이 사물의 기능과 인간의 육체적 삶을 지속시키는 기능력과 생명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에 깃든 혼백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곧 신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것을 연역해 보면 사람보다 열등한 다른 동물이나 생물도 그에 부합되는 신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 사후에 혼과 백이 각각 하늘과 땅으로 귀의하는 것은 동양사상의 음양적 세계관이 인간사후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하는 것으로 즉, 양적인 요소인 혼은 양의 세계인 하늘로 귀의하고 음적인 요소인 백은 음의 세계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셋째, 대순사상에서의 신은 인간과 같이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경 교운 1장 19절에서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시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과 같이 써 붙이셨도다.」의 내용과 전경 공사 1장 29절의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 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

전경 교운 1장 31절 「문공신(文公信)과 박장근, 이화춘 세 사람은 고부화

액을 당하고 상제를 원망하여 불경한 패설을 일삼았도다. 이화춘은 삼월에 의병에게 포살되었고 박장근은 의병으로 부터 매를 맞고 뼈를 부러뜨렸도다. 상제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 잡을 것과 천노가 있음을 알려주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셔서 이 화춘을 귀신으로서 위안하셨도다.」의 말씀을 참고하면 신은 구천상제와 천지공사를 판단할 정도로 진리에 지극한 이성적·법칙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를 잊지 못하고 죽은 중천신은 원한을 품었다든지, 이 화춘이 상제에게 불경한 언사를 행하여 천벌을 받아 죽어 귀신이 되었음에도 그를 궁홀히 여긴 상제로 부터 위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신도 원이나 한, 불만 등을 품는 감성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에서 본 신은 진리와 법칙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존재이다.

전경 교운 1장 33절 「각 성(性)의 선령신이 한명 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전경 공사 1장 16절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니 너희는 웃지 말라. 만일 너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웃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가 한번 가면 어느때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라.」 위의 두 말씀을 살펴보면 비록 상제의 권능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편벽되게 처결한다든지, 비록 상제의 지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신명에게 부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신명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와 뜻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최고위의 신격에 있는 상제라 할지라도 사정을 쓰거나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천지공정에 참여한 신명들은 이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에게 부합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신의 자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 본 신의 세계는 자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상호존중의 세계임을 알 수 있다.

### III. 大巡思想의 人間觀

여기에서는 우선 인간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본 뒤 대순사상에서 본 인간에 대한 관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를들면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孟子」, 盡心上, 四部備要版, 萬物章 7A4: 萬物皆 備於我)고 주장한 맹자에서 부터 시작하여 ‘우주가 곧 내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우주다’ (「象山全集」, 四部備要版, 22:5a: 宇宙便是吾心 吾心即是宇宙)라고 한 육상산(陸象山)에 이르는 유가철학은 주자(朱子)가 대변하듯이 ‘인간을 작은세계’ (朱子, 「近思錄集注」, 四部備要版, 1:21: 蓋人便是一個小天地也<江永>)로 규정하고 있다.

플라톤은 인간의 신체를 모형 내지 준거 틀로 삼으면서 안으로는 영혼의 구조를, 밖으로는 공동체(국가)의 구성을 설명하려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 본능은 천성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져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생각하였다. 18세기 실증과학의 인식론을 전개한 휴움(David Hume)도 ‘모든 과학은 ... 인간의 본성에 관계를 갖고 있으며... 결국 인간성의 문제로 복귀한다’ 고 갈파하였다.

또한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물음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좋은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들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고 피력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민윤리학」, 박영사, 1985년) 이러한 여러 실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 모든 존재의 전형(典型)이며 인식의 주체라는 점이다.

인식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연구와 탐구는 인간이 존재한 이후 아마 계속 되어온 작업일 것이다. 자연과학적 탐구를 위주로 한 서양에서는 인간에 대한 외적 실재를 주로 탐구해왔다면 동양에서의 탐구는 음양사상 및 도사상을 위주로 한 내적 자아의 깨침과 아울러 외적 실재와의 조화적 통합을 위주로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두 요소인 정신과 육체, 마음과 몸에 대한 사유체계가 동양사상에서는 자기인식·자발성·신체인지와 그 계발같은 인간내면과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분할한 이후 신심이 원론적(身心二元論的)입장이 팽배하다가 근대철학사조에 와서는 이러한 신심이원론적 사고의 극복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조선시대 서유구(徐有榘)는 『林園經濟志』의 「葆養志」에서 인간은 음양의 이기(二氣)와 四大로 형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같은책 권3의 「起居飲食」 부에서 신체의 각부에 관한 설명을 하고있다. 이 가운데 특히 머리에 관해서는 ‘頭爲天谷以臟神 神者一身之元神也’라하여 정신작용이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 사람의 이목은 성음과 미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장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나 정기(正氣)를 지켜야한다고 했다. 입과 코는 천지의 기가 통하는 곳으로 노자가 말한 현빈(玄牝)은 바로 입과 코라 했다. 그리고 사지(四肢)는 양의 근본이기 때문에 양이 성하면 사지가 튼튼하다고 했다. 그래서 서유구는 신체는 가옥이며 心이 가옥의 주인이라는 관념을 가졌으며, 그는 身과 心을 별개의 독립체로 보기보다는 신체가 허물어지면 心도 거처할 곳을 잃게되며 心이 떠나면 주인없는 집은 저절로 허물어지게 된다고 보아 신심이 서로 미분리되어있고, 육체와 정신 즉 신체와 心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역학과 동양의학을 통해서도 인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역에서는 「天道가 있고, 地道가 있으며, 人道가 있다. 三才는 천·지·인도이다」라고 하고, 중국 「古事成語考」에서는 「천지는 사람과 함께 三才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천지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우주를 구성하는 3대요소이며 이 3대요소는 본원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과, 인간은 바로 하늘과 땅을 닮은 존재임을 말한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을 인체에 대비시키면 하늘:영혼, 땅:육체, 해와 달:눈, 산맥:뼈, 들:살, 산천초목:털, 오대양육대주:오장육부, 강물:핏줄, 지표의 2/3가 바다:인체의 70%가 수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1년이 365일이듯 인체에 365혈기가 있고, 12달이 있듯 12경락이 있으며 최근에는 우주의 행성만큼 인체에도 비슷한 세포가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동양의학을 비롯 도가 사상을 살펴보면 인간의 육체속에는 수많은 신명이 내재되어 있고 그 신명들은 육체와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인간정신과 육체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황정경(黃庭經)』에 보면 인간에게는 장부의 신인 간신(肝神), 심신(心神), 비신(脾神), 폐신(肺神), 신신(腎神), 담신(膽神)이 있고 인체의 백절(百節)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신의 명칭이 아주 많아 일일이 열거키는 어려우나 대체로 몸에는 3부(三部)가 있으니 상부의 팔경(八景), 중부팔경, 하부팔경에 24신이 있다. 그리고 구궁진인(九宮真人)이 있고, 몸밖에는 1만8천의 양신(陽神)이, 몸안에 1만8천의 음신(陰神)이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강궁진인(降宮真人) 즉 심(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삼신신(三身神), 사지신(四知神), 삼혼신(三魂神), 칠백신(七魄神), 칠원팔식신(七元八識神) 등 수많은 신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심군(心君)이 주장이 되어 만신을 통솔하기 때문에 지각을 가지고 천변만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에 대한 제론을 마치고 대순사상에서 본 인간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의 인간관의 정리는 지금까지의 인간에 대한 제론과는 달리 대순사상에서 요구되는 신 인간상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바람직한 신인간상은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의 법리를 체득하여 안심(安心) · 안신(安身) · 경천(敬天) · 수도(修道)하는 생활을 성(誠),경(敬),신(信)을 다하여 실행함으로써 무자기(無自欺)하고, 정신개벽하고, 심신을 개조하여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서 예정된 도통진경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위해서 대순사상에서 현대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신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인간

전경 교법 1장21절의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교법 2장 7절의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

교법 3장 24절의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

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위의 말씀을 참고하면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만복의 근원이 되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은 자신을 망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인간은 자신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밝게 할 인간상인 것이다.

둘째, 언덕(言德)을 잘가지는 인간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말 잘하면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되어 내몸에 이르리라」 (전경 교법 1장 11절)

「뱀도 인망을 얻어야 용이되나니 남에게 말을 좋게하면 덕이 되나니라.」 (교법 1장 26절)

「한고조는 소하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을 잘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복이 되어 내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화가 되어 내몸에 이르나니 삼갈지니라 하셨도다.」 (교법 2장 50절)

위의 전경말씀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말은 선한 마음이 전달되어 서로를 좋게하고 남에게 악한 말은 서로를 악하게 하여 결국 인간사회가 불행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좋은 말씨와 언행은 덕이 되어 사회를 화순케하고 나쁜 말씨와 언행은 사회를 거칠게 만들기 때문에 말에도 덕을 붙여 표현할 수 있는 인간상이 요구된다.

셋째, 척을 짓지 않는 인간

전경 교법 2장 44절에 「속담에 「무척 잘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한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

이되어 갇나니라』고 한 말씀은 적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니, 척을 짓는 것은 곧 남에게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원을 짓는 것이나,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심지어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도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척을 짓지 않도록 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을 대순사상에서는 요구한다.

넷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

은혜라함은 남이 나에게 베푼 해택을 말하고 그것을 저버린다면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배반함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보더라도 인간으로의 탄생은 천지의 합덕에 의함이고, 선령신의 무한한 공덕과 공력에 의함이고, 부모의 정기에 의함이고, 지(地)·수(水)·화(火)·풍(風)의 화합과 조화에 의함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자체가 천지와 선령신과 부모와 자연으로부터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항상 만족하는 마음으로 은의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은의를 저버리지 않고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리를 다 하여야 하며 천지와 국가와 사회와 부모와 자신의 직분에 대한 모든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남을 잘되게 하는 인간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상생대도의 기본적인 행이요 단초이다. 증산성사의 대순진리와 천지공사의 대의도 우주를 개조하고 뜯어 고쳐 만민, 만신을 살리기 위함이고, 전명숙이 백의한사로서 거병한 것도 천한 사람을 잘되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상생의 시대가 도래하는 앞으로의 세계는 진실로 남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IV. 神人調化思想의 現代的 理解

### 1. 大巡思想에서의 神과 人間

대순사상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일적 또는 일체적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 하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과 일체의 관계에 있는 신의 작용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신은 손톱밑에 가시가 박히는 작용도 다 신명의 작용이라 할 정도로 인간의 일거일동에 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인간 또한 신에게 작용을 미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전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몇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은 사람이 먹는대로 흠향하니라.」(교법 1장 49절)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싸움이 결정되나니라」(교법 1장 54절)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상제께서 전주 김 준찬(金俊贊)의 집에 가셔서 김 덕찬(金德贊).김 준찬(金俊贊).김낙범(金落範)들과 좌석을 함께 하시다가 가라사대 「근자에 관묘(關廟)에 치성이 있느냐」 고 하시기에 낙범이 있음을 아뢰었도다. 이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그 신명이 이 지방에 있지 않고 멀리 서양(西洋)에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나니라」 고 알리셨도다」(행록 4장 11절) 위의 말씀을 참고하면 인간의 작용력이 신명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역으로 신명계의 작용력이 차후 인간계에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신과 인간의 일체적 관계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마음상태와 기국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신명이 응한다고 한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입하며 도로를 왕래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게 되니 내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子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신이 마음에 의지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교운 1장 66절)

「사람마다 그 닻은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위의 전경말씀에서 보듯이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출입·왕래하며 인간의 마음상태에 따라 신명은 달라지거나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신과 인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합일적 존재이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조화(調化)적 존재이다. 그러나 신과 인간이 부조화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과 인간은 분리되고 인간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요, 합일적 관계요, 조화적 관계요, 상호보완적관계라고 할 수 있다.

## 2. 神人調化思想의 理解

신인조화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교의(教義) 중 하나이다. 음양합덕이 우주의 탄생과 변화의 근본원리라고 한다면 신인조화는 우주의 운행과 경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음양합덕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적 요소와 양적 요소의 순환적 결합을 통해서 우주만물의 탄생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을 말하고 신인조화는 우주경영의 두 요소인 신과 인간의 조화적(調化的)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주운행과 경영의 조화(造化)를 행함을 뜻한다고 본다.

신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서는 전경 교운 2장 41절의 「신명이 인간의 뒤에 없으면 의탁해 의지할 바가없고 인간이 신명의 앞에 없으면 이끌려 의지할 바가 없으니 신명과 인간이 조화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신명과 인간이 화합하여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신명이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이 신명을 기다리고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이 서로 통하면 그런 연후에 천

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지며 신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사업이 이루어진다.」(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라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인조화의 원리에 의해서만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인간이 서로 상통한 연후에야 천지대도가 분명해지며 비로서 신명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과 인간의 조화와 화합이 천지의 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인조화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현대적 의의를 가지는데 하나는 신인조화는 그동안 인간이 꿈꾸어 왔던 인간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세계를 도통진경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이라는 두 조건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신인조화는 신명계의 조화, 인간계의 조화, 신명과 인간의 조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본다.

전경 공사 1장 3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에서 우리는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개괄적인 대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